비완결상의 하위범주로서의 상에 관한 고찰

- 보조동사 상 중심으로 -

이승희*

〈차 례〉

1. 머리말
2. 보조동사 상의 합성적 구현
3. 보조동사 상 구문의 분류 기준
4. '상황의 전개 양상 단계'에 따른 보조동사 상
5. 완결상과 보조동사 상 결합 양상
6. 어휘상과 보조동사 상 결합 양상

【국문초록】

본고는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범주를 재분류하거나 보조동사의 상 형식을 규명하는데 있지 않으며, 한국어 교육에 있어 동사와 관련된 문법 범주로서의 보조동사 상의 의미에 관한 기본적 논의의 성격을 지닌다. 본 고의 문제의식은 개별 언어에 있어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하위범주로서의 상 실현은 어휘상과 함께 서로 긴밀도가 높아 어느 한 가지 개념만으로는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완결상과 비완결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한국어에서 상 실현의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은 완결상과

*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교양국어) 외래강사

비완결상 이분 분류의 필요성, 보조용언 상의 지위와 범주, 어휘상 자질의 의미 등이 모두 일치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일치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나 현재의 한국어 상 실현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합적으로 살피면 유사한 점을 찾아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본고는 한국어의 상은 선행하는 주동사의 어휘상이 주는 정보와 후행하는 보조동사의 상적 의미가 주는 정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비완결성의 성질을 가진 범주를 분류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조동사의 실현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완결상, 비완결상, 어휘상, 문법상, 상적 특성, 진행상, 지속상, 보조동사 상

1. 머리말

본고는 비완결상(imperfective)의 형태와 의미를 '상황의 전개 양상 단계'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완결상 및 어휘상과의 결합양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완결상(perfective)과 비완결상(imperfective)의 용어는 '상황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viewpoint)'이라는 상보적 견지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비완결상의 하위 범주를 재분류하거나 보조동사의 상 형식을 규명하는데 있지 않으며, 한국어 교육에 있어 동사와 관련된 문법 범주로서의 상 의미에 관한 기본적 논의의 성격을 지닌다. 보조동사가 지닌 상적 의미는 한국인이라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중시되지 않는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조동사로 표현되는 상에 관한 인식은 한국어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국어학에서 완결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비완결상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비완결상의 하위 범주로 고영근(2009)은 '진행상, 예정상'을, 정희자(1994)는 '지속상, 반복상'을, 박덕유(2007)는 '진행상, 반복상, 예정상'을, 우창현(2003)은 '기동상, 진행상, 완료상' 등을 내세웠으며, 오충연(2006)은 '보조적 상 양식'이란 명명 하에 '-어 있-'과 '-고 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슬라브어처럼 완결상과 비완결상이 정교하게 대립하지 않는 한국어에서 비완결상의 하위 범주 설정을 비판한 문숙영(2014:155)은 비완결상 대신 '국면상(phasal aspect)'을 제안하고 '양화상'을 따로 설정하여 '습관상'이나 '반복상'을 '양화상'의 일종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비완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이유는 형태와 의미에 있어 어느 영역까지를 비완결상에 포함시킬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형태에 있어서는 연결어미와 보조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보조 동사 구성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국어 보조동사 구성은 상 뿐만 아니라 양태의 의미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의미가 상에 집중된 높은 문법화 단계'를 보이는 보조동사 구성에 대한 이견과 비완결상의 의미 영역에 대한 이견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항상 존재한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는 비완결상(imperfective)의 의미 영역에 대해서는 일치된 합의를 보기 어렵더라도 보조동사 구성 중 그 의미가 '상황의 전개 양상 단계'를 의미하는 보조동사 구성은 비완결성(imperfection)을 공통자질로 기술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유용성이 있음을 밝히려 한다. 따라서 높은 문법화 단계에 이른 보조동사 구성 중 의미가 상에 집중된 보조동사 구성이 '상황의 전개 양상 단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기로 한다.

2. 보조동사 상의 합성적 구현

보조동사 구문으로 이루어지는 비완결상의 표현이 형태와 의미에 있어 문법화 정도는 연구자에 따라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조동사가 '상'과 '양태'의 의미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보조동사가 상의 의미를 분담하는가, 양태의 의미를 더 분담하는가도 그 범위를 명료하게 구별해 낼 수 없다. 보조동사로 표현되는 상 분류의 어려움에 대하여 아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1) 가. 나이가 들어 뚱뚱해진다.[1)]
나. 날씨가 따듯해 눈이 감겨진다.

보조동사 구성 '-어 지-'는 (1가)에서 동작의 '시작-중간-끝' 단계의 시작'이나 상태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동상'에 해당한다. (1나)는 '무의지, 무의도(無意圖)' 등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2)] 이처럼 동일한 보조동사가 결합하는 선행동사에 따라 상의 의미와 양태의 의미를 나누어 부담한다. 다음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이다. 아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

1) 익명의 심사위원 한 분이 서술어 부분을 '뚱뚱해졌다'로 환언한다면 '기동상'의 의미가 약화된다고 지적하셨다. 의미가 약화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뚱뚱해졌다'에서 '-었-'의 부가로 인해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일이 되었으며, 이는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이미 끝난 것이므로 이것을 현재 기동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뚱뚱해진다'의 의미는 '뚱뚱한 상태기 되기 시작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기동상'으로 볼 수 있으며, '뚱뚱해졌다'는 현재와 단절된 과거 화자가 '상황의 전개 양상 단계' 중 '기동'의 제한적 전망틀에서 바라 본 것을 과거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2) '-어 지-'의 의미로는 이외에도 '피동', '자동사화', '가능', '능력', '상태변화' 등이 있다.

(2) 가. 김치를 거의 다 먹어가고 있다.
나. 창문이 닫히려고 하다.

(2가)는 동사 '먹-'에 '추향'의 의미를 지닌 '-어 가-'와 '진행'의 의미를 지닌 '-고 있-'의 보조동사 구성 두 개가 연이어 결합하는 구성이다. 이때 '추향'은 '종결점'으로 향해 가는 동작이고, '진행'은 '종결점'과는 상관없는 동작의 계속일 뿐이다. (2나)는 피동사 '닫히-'에 어떤 동작이 곧 '발생될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는 '-려 하-'와 동작의 계속됨을 의미하는 '-고 있-'이 결합한 것이다. 동작이 발생 전의 상황과 동작 발생 후 진행 의미의 서로 다른 의미가 상충되는 경우이다.[3] 또한 보조동사 구성은 결합하는 선행동사가 본래 지니고 있는 상 자질에 따라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3) 가. (빨래가)마르다, (집을) 고치다, (짐을)꾸리다
나. 웃다, 놀다. 일하다
다. 묻다, 드러나다

위의 동사들을 동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상 자질의 조합에 따라 (3가)는 [완성성], [지속성]의 '완수' 유형, (3나)는 [비완성성], [지속성]의 '활동' 유형, (3다)는 [완성성], [순간성]의 '달성' 유형으로 분류된다.[4] 이들 동사들과 보조동사 구성 '-어 가-'와의 결합을 살펴보자.

---

3) 예정상으로 주장한 형태는 '-려 하다'(옥태권, 1988:52), '-려고 하-', '-게 되-', '-게 하-', '-어 지-'(박덕유, 2007:243-250), '-고자 하다, -러 가다, -려고 하다(고영근, 2009:308-309) 등 다양하다.

4) 본고의 [완성성(telic)]의 정의는 '동작이 종결점에 도달 후 변화된 상태가 결과로 남아 있는 있음'으로 한다.

(4) 가. 빨래가 말라 간다.
나. *영희가 웃어 간다.
다. 손때가 묻어 간다.

(4)는 (3)의 동사에 '-어 가-'를 결합한 것이다. (4가)와 (4다)의 [완성성]을 가진 동사는 보조동사 '-어 가-'와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4나)의 [-완성성]을 가진 동사는 '-어 가-'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다. 이는 '-어 가-'가 '종결점'을 향해 가는 '추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종결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속성을 지닌 바, 종결점이 없는 '활동' 유형은 '-어 가-'와의 공기가 부자연스럽다.

또한 (4다)와 같이 '-어 가-'가 [순간성]을 지닌 동사와 공기할 수 있는 것은 '-어 가-'가 [순간성]과는 관련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종결점'을 지니고 있는 동사는 '-어 가-'의 '방향성'과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 가-'가 '진행'의 보조동사 구성인 '-고 있-'과 유사한 성격으로 다루어져 ''상 표지'로서의 지위를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문장으로 '-어 가-'와 '-고 있-'은 다른 상의 양상임을 확인해 보자.

(5) 가. 빨래가 마르고 있다.
나. 영희는 웃고 있다.
다. 손때가 묻고 있다.

(5가)의 동사 '마르-', (5나)의 '웃-', (5다)의 '묻-'는 모두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고 있-'와의 공기가 자연스럽다. (5)를 (4)와 비교하면 (4나)의 '활동' 유형만 다른 공기 제약이 있다. 이는 '진행'의 표지 '-고 있-'은 [완성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황 전개 양상'의 '중간' 단계의 일정 '지속' 구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태성]과 [지속성]이 주요 자질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

해 '추향'의 표지 '-어 가-'는 [동태성]과 [완성성]이 주요 자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전개 양상 단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추향'을 나타내는 '-어 가-'는 동작 국면의 의미 있는 전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동사 상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처럼 비완결상의 범주를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완결상의 설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완결상이 아닌 상들이 의미나 기능에 있어 어떤 공통점을 가졌는지 고찰하면 몇 가지 일관된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다.

3. 보조동사 상 구문의 분류 기준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보조동사의 상 실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모든 보조동사 구성이 상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보조동사 구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상적 의미를 드러낸다.[5]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조동사의 판별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상표지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들이다.

우창현(2003)은 "보조용언에 따라 문법상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 의미인 경우도 있고 문법화 과정에서 일부 상 의미가 확인되어 문법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법화의 진행 정도가 서로 다른 보조용언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떤 보조용언만을 문법상이라고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독립적인 하나의 동사가 기존의 어휘적

---

5) 전통문법에서 "보조용언은 독립적으로 완전한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자립용언 뒤에서 '시제나 동작상', '사동이나 피동', '부정' 및 '양태(modality)' 등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돕게 된다. 이 중 시제나 동작상의 상적 의미를 나타나내는 상적 보조동사를 상 보조동사라고 한다"(고영근·구본관, 2011: 412, 416).

의미를 잃고 '문법화된' 혹은 '문법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보조동사의 개념을 따라 '연결어미+보조동사'로 굳어져 쓰이는 구성은 통사론적 구성에서 형태론적 구성으로 변하면서 문법적 요소로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른바 상적 보조동사 구성은 문법상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6)]

이러한 논의에 대해 서정수(2013:245)는 "보조용언의 의미 양상이 일정한 문법 형태와 대응되기보다는 여러 낱말의 합성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되므로 보조용언에 대해 상을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로 여기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호승(1997:23)에서는 "어휘상 유형이 보조용언의 상적 기능과 합성하여 문장의 상적 의미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보조용언을 완전한 문법 형태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추상화를 통해 문법적 상의 의미를 구현 한다"라고 하여 문법상으로 인정하였다.

최근에는 Smith(1997)의 이원론(The component theory)을 기반으로 문법상으로서의 보조동사들을 어휘상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러나 상적 보조동사를 인정하는 연구자라도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보조동사의 세부적 사항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또한 Comrie(1976, 12)의 "상이란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를 관찰하는 방식이다. 관찰 방식은 완결상(perfective)과 비완결성(imperfective)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정의는 상에 관한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나 Comrie(1976)의 이러한 분류법이 한국어에 적용되면서 다소 혼란을 가중시켰던 부분

---

6) 다음은 보조동사의 문법화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이다.
가. 김명희(1988): 절 접속(사슬 구문) → 연속동사화→ 후행동사가 문법 기능 획득(보조동사화)
나. 호광수(2003): 보조용언화 단계(1단계) → 의존적인 문법 의미(2단계) → 접어화 단계(3단계)
다. 김기혁(1981): 통어적 구성 → 통어성 합성동사 → 비통어성 합성동사 → 보조동사

이 있다.[7]

Comrie(1976)가 진행이 아닌 비진행이라 명명하였을 뿐 내부 상황은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한국어에 적용되면서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완결상과 '내부 시간 구조'를 보는 완료상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완결상과 완료(연구자에 따라 종결), 진행 등은 서로 다른 관찰방식에 의한 것이다. 완결상은 '-었-'과의 문제이고, 완료는 '버리다, 내다 두다 말다', 진행은 '-고 있-' 등의 보조동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호광수(2003)의 문법화 단계에 의하면 '-었-'은 문법화 3단계인 문법소화 단계에 해당하고, '-고 있-'은 문법화 2단계인 접어화 단계에 해당하며, '버리다, 내다, 두다, 말다' 등은 문법화 1단계인 보조용언화 단계에 해당한다.[8] 완결상에 해당하는 '-었-'은 문법소화 단계인 만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비완결상에 해당하는 상적 보조동사는 분류에도 차이를 보이고 문법화 2단계와 1단계가 섞여 있어 특히 1단계에 해당하는 보조동사는 상 표지를

---

7) Comrie(1976)의 상 체계를 요약하면 "완결상은 외부에서 상황의 내부 구성을 관찰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점처럼 덩어리로 보는 것이다. 비완결상은 상황의 내부 구성을 관찰하여 비완결상을 다시 습관상(habitual)과 지속상(continuous)으로 분류하고, 지속상은 다시 진행상(progressive)과 비진행상(non-progressive)으로 나눈다"로 요약할 수 있다.

8) 국어 보조용언의 문법화를 호광수(2003:203)에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보조용언화 단계); 자립적인 본용언들이 다의화되면서, 의존적으로 쓰이게 되는 단계, 자립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2단계(접어화 단계): 보조용언이 선·후의 요소들과 결합되어 의존도가 높아지고 제약적으로 쓰이는 단계, 이 단계에 오면 자립적인 의미로의 해석이 전혀 불가능하고 추상적인 의미로만 쓰인다.
3단계(문법소화 단계) 융합(fusion)이 이루어져 접미사와 같이 완전히 다른 범주로 바뀌는 단계, 자립 형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단계이러한 3단계를 공식화하면 "본용언 → 보조용언 → 접어 → 문법소"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갖춘 보조동사로서의 지위를 아직 확실하게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의 분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보조동사로 이루어진 비완결상의 상적 분류 범주이다.

첫째, 완료상과 미완결상으로 분류
둘째,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분류
셋째, 종결상과 지속상으로 분류
넷째, 기타

첫째는 비완결상의 내부 구조를 크게 완료와 미완료로 분류한 것이다. 완료와 미완료의 2가지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미완료만 다시 하위분류하여 세분하는 경우가 있다. 정렬모(1946), 이호승(1997) 등은 전자에 속하고, 고영근(1980), 정희자(1994), 박덕유(2007), 우창현(2003) 등은 후자에 속한다. 하위분류한 상을 살펴보면 고영근(1980)은 '진행과 예정', 정희자(1994)는 '지속과 반복', 박덕유(2007)는 '진행과 반복 및 예정', 우창현(2003)은 '기동과 진행 및 완료'를 두었다.

둘째는 비완결상의 내부구조를 크게 완료와 진행으로 이분하고 하위분류는 하지 않았다. 나진석(1971), 장석진(1973), 이남순(1994), 이지양(1998)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비완결상의 내부구조를 종결과 지속으로 이분한 것이다. 김성화(2003)가 이에 속한다. 넷째는 비완결상의 내부구조를 완결과 완결이 아닌 것으로 이분하지 않고 세 분류의 체계로 분류한 경우이다. 김차균(1999)은 '진행, 지속, 완료'로, 김종도(1993)는 '완료, 미완료, 결과'로 분류하였다.

이들 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목록들 중 '-고 있-'과 '-어 있-' 외에 '버리다, 지다, 내다, 두다' 등의 보조동사의 용인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는 문법화의 정도에 관한 것으로 '-고 있-'과 '-어 있-'을 제외한 보조동사들은 문법화로 진입했다

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법화 3단계의 문법소화의 단계에 해당하는 접미사처럼 기원이 다른 범주로부터 비롯된 경우는 동일한 언어형식이라 해도 문법적 지위가 다양하고 1단계와 2단계의 진입 초기나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이동이 여전히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목록을 정확히 선정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상적 보조동사는 어휘상의 형태로 추상적 어휘 의미를 바탕으로 양태 의미를 부차적으로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태 의미가 강하고 상적 관점의 역할은 약한 것도 있고, 상적 관점이 강하고 양태 의미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어 버리-, -고 나-, -어 내-' 등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고 있-', '-어 있-' 등이다. 상적 보조동사의 기능은 문법상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이때 양태의 부차적 의미는 문법상의 기능 수행과 관련이 있다.

완결상과 대립되는 상으로서의 비완결상은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 기동의 '-어 지-', 진행의 '-고 있-', 향진의 '-어 가-', 종결의 '-어 버리-', 결과의 '-어 있-'로 분류할 수 있음을 밝혔다.

4. '상황의 전개 양상 단계'에 따른 보조동사 상

한국어는 슬라브어처럼 완결상과 비완결상이 견고하게 구분되는 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비완결상의 의미와 범주는 연구자마다 다르고 각각의 분류에 따른 비판 요소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하위범주의 체계를 세우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한국어의 비완결상을 아우를만한 공통 특성으로 합의된 것이 비완결성이라는 점 이외에는 합의된 점이 없고, 보조동사 구성으로 표현되는 것들 중 '-아 있-'이나 '-고 있-' 이외에 상을

표현하는 일부 보조동사들에 대해서는 문법화의 정도가 달라 상의 '표지'라는 지위를 부여하기는 부담스럽다.

비완결상의 하위 체계를 설정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한 Comrie (1976:30)의 의견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비완결상은 하나의 범주로 표현되는 언어도 있고, 여러 개의 하위범주로 나뉘는 언어도 있다."
- "비완결상은 여러 종류가 함께 나타날 때도 있다."
- "비완결성은 완결상과 함께 나타는 일도 가능하다."

한국어 연구에서 비완결상의 하위범주는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 어떤 연구자가 문법 범주로서의 비완결상을 분류했더라도 '의미, 기능, 형태' 등의 면에서 일치하는 교집합의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라 비판의 요소는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연구는 비완결상 으로서의 진행상이 아닌 '-고 있-' 형태의 의미와 기능으로 '진행', '지속', '완결', '반복', '습관'등 의 범주로 기술한다. 이는 '-고 있-'이 가진 상적 의미를 나열한 것이지 비완결상으로서의 사태 내부를 논의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습관상'과 '반복상'을 '진행상'과 같은 '비완결상'의 하위범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의 의미를 모두 비완결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비판받기 쉽다.

"한국어에서 상을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대립으로 기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문숙영, 2013:131).라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완결상이 아닌 상들의 기술 문제에 있어 비완결상의 설정이 유효한 점을 들어 비완결상은 동작 내부의 변화단계라는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즉,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차이는 '사태를 밖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가, 내부에서 내적 구조를 살피는 것인가의 차이이다.' 라는 기본 전제 틀을 유지한다. 그러나 내부구조에 있어 동작의 양상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진술할 것이다. 동작의 국면이 달라지는 양상을 기술함에 있어 문제는 과연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 동작의 국면 단계에 포함해야 하느냐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의 쟁점은 동작의 움직임을 실제성과 관련해서 봐야 하는데 이 대목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지점이다.

예를 들면, '반복상'과 '예정상'은 동작의 전개 과정이 아닌 '특성 상황의 연속적 반복'이라는 점과 '동작 시작 전'이라는 점에서 완결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비완결상으로 범주에 넣기에는 다른 비완결상들과 다른 특징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Klein(1994: 108, 114-117)에서도 "예정상은 완료상, 미완료상 밖에 있다"고 한 이유이다. 한국어에서 예정상은 진행상을 다루는 '-고 있-'의 여러 가지 의미 중 하나로 등장한다. 이는 예정상이 진행상의 하위개념이라는 뜻도 아니고 예정상이 비완결상이라는 뜻도 아닌 '-고 있'의 여러 의미 중 하나로 서만 다루어질 뿐이다.[9)]

그러나 본고에서는 '예정상'은 비완결상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나 '반복상'은 비완결상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왜냐하면 '예정상'은 앞으로 발생할 동작과 관련하여 모종의 상황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내포하고 있으나, '반복상'은 '상황의 전개 양상 단계' 라는 본고의 의미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반복상은 사태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복도 아닐 뿐 더러 사태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어휘적 수단들-주어항의 복수, 목적어항의 복수 등-에 의해 의미적으로 나타나므로 어휘상과 더 관련이 깊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정상' 역시 '동작 내부 포함 전'의 단계인데 '예정상'을 포함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예정상'이 '동작의

9) '예정상'의 존재를 부정한 논의는 김성화(2003)에서 찾을 수 있으며, 옥태권(1988), 박덕유(2007), 고영근(2009) 등 소수의 연구자만이 예정상을 인정하였다. 그 외 다수의 연구자는 이들이 예정상의 범주에 포함한 것을 기동상이나 피동의 범주에 넣었다.

발생 단계 전'이므로 '동작 내부 변화 단계'에서 제외시킨다면 '결과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정상'이 '동작 내부 단계'에 포함될 수 없다면 기존의 '결과상'이나 결과 후 '지속상' 등을 비완결상에 포함한 분류들의 근거가 약해져 비완결상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일이다. 또한 어휘상에 있어서는 최종점 이전의 예비 단계와 최종점 이후의 결과 단계까지 포함하여 어휘상을 분류하면서 동작의 변화 단계에서 예비 단계를 제외시킬 근거도 없다. 이는 '예정상'을 비완결상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때 가지게 되는 부담이다.

동작이 끝난 후 지속 단계를 비완결상에 포함시키면서 예정상을 결과상이나 지속상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동작의 완료 후 결과 까지를 동작의 영향권 안에 포함하였다면 발생할 행위와 관련하여 앞으로 실현될 어떤 상황을 내포하는 예정상도 동작의 단계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정상을 제외시킨다면 '달성' 동사의 예비 단계나 최종점 도달 후 결과 단계를 포함하여 어휘상을 분류한 근거가 약해진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다루는 보조동사 상의 범주는 시간의 경과되면서 상황이 전개되는 동작의 발달 단계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이들은 상 보조동사로 문법화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상 표지로 발달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 의미가 중심 의미라고는 볼 수는 없는 상태이다(이승희, 2016:104).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범주적 지위가 확연하지 않고, 문법화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한국어에서 보조동사는 전통문법, 생성문법, 인지문법의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관점에 따라 보조동사의 범주와 보조동사의 목록이 다르다. "보조동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조동사의 범주를 인정'하는 입장, 보조동사를 일반 동사의 특수한 용법으로 보고 이를 기저구조에서 상위문 동사로 보는 '변형 문법론적 입장', 보조동사를 선행동사와의 결합 과정에서 발생

한 '합성동사의 후생성분' 동사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하나 최현배(1971)이후 학교 문법 등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보조동사의 범주를 인정하는 입장이다(구종남 2013:9 요약)". 이처럼 보조동사의 범주를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범주 내에서의 세부 분류와 그 목록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선행용언에 후행 결합하는 보조동사와 관련된 연구는 보조동사들의 개별 의미기능에 관한 연구와 결합 방식에 대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별 의미 기능에 있어서도 크게 양태 범주인지 상 범주인지에 따라 양태 보조동사와 상 보조동사로 나뉘어서 도출되는 보조동사의 목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보조동사로 인정되는 '형태 선정'이나 '의미'도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어 내-, -어 버리-, -어 놓-'는 양태적 입장에서 본 의미와 상적 입장에서 본 의미 풀이가 다르고, 이들이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밝히기가 어렵다, 또한 보조동사의 상적 의미가 양태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 양태의 의미 차이에 따라 상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선도 사실 모호하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6) 가. 밥은 이미 먹어 두었어.
나. 밥은 이미 먹어 놓았어.

(7) 가. 이미 사표를 던져 놓았으니 방법이 없다.
나. *이미 사표를 던져두었으니 방법이 없다.

(6)의 보조동사 '-어 두-'와 '-어 놓-'의 의미는 '보유(保有)', '동작의 결과 지속', '동작의 상태지속'의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중 어느 의미에 더 적합한지는 통사적, 양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7)과 같이 '-어 두-'는 '주어에 이익이 되는 행위'와 더 자연스럽게 호응한다는 양태적 의미 차이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연구 시각이 달라 보조동사로 선정된 항목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보조동사로 인정한 형태들로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완료', '종결', '결과' 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가 있다. 반면에 양태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등은 문법화 초기 단계에 있어 연구자에 따라 보조동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형태로는 '-려 하-', '-어 버릇 하-', '-게 생겼-, -척 하-, -뻔 하-' 등이 있다. 보조동사로 인정된 형태들 중 주로 양태를 담당하는 보조형용사를 제외하고 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동사로 '-어 버리-, -어 나-, -어 내-, -어 쌓-, -어 대-, -어 두-, -어 놓-, -어 지-, -어 오-, -어 가-, -고야 말-, -어 제치-, -어 치우-, -어 들-' 등이 있다.

이 중 '상황의 전개 양상 단계'와 관련이 있는 '예정상, 기동상, 진행상, 향진상, 종결상, 지속상'의 보조동사를 추려보자. 물론 '종결', '완료', '완결의'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표 1〉 상황의 전개 양상 단계

시작 전 단계	시작 단계	중간 단계		끝 단계	끝 단계 이후
예정상	기동상	진행상	향진상	종결상	지속상
-려고 하다 -게 되다	-어 지-	-고 있-	-어 가/오-	-아 버리-	-어 있-

이상의 분류는 동작 끝 단계와 끝 단계 이후를 종결과 결과를 구분한 것이다. 본고에서의 '종결'은 '시작점(initial)'과 '최종점(final point)'을 지닌 동사가 의도된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점'과 구분한다. '끝점'은 상황의 끝을 의미하므로 그 끝은 자연적인 동작의 끝이든, 임의적인 동작의 끝이든 상관없이 표시될 수 있다. 반면에 '종결상'은 행위자의 의도된 행위가 종결

까지 제대로 이루어져 끝남으로써 상황이 종료된 부분을 바라보는 '전망틀'로서의 관점을 의미한다.

5. 완결상과 보조동사 상 결합 양상

상과 관련된 논의에서 화자의 전망과 관련된 완결상과 비완결상에 앞서 항상 대두되는 것은 완결상과 과거시제의 문제이다. 완결상과 과거시제는 상과 시제 연구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개념이 혼재되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어가 상보다 시제가 부각 되는 언어(tense-prominent language)에 속하지만 환경에 따라 시제가 부각되는 경우와 상이 부각되는 경우가 맥락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서정수(2013:247)의 과거시제와 완결상에 대한 진술 중 일부 내용이다.

- "우리말의 과거 시제는 본디 완결상의 의미 특질을 내포한다."
- "'-었-'으로 나타내는 과거 시제는 본디 과거 시제이지만 그 과거성 의미에는 본질적으로 완결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한국어의 경우 과거시제와 완결상의 형태적인 구분이 없다."
- "환경에 따라서 시간적 위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과거시제로, 상적인 의미가 강하게 부각될 때는 완료상(여기서는 완결상의 의미임)으로 쓰인다."

이상의 기술은 한국어에서 완결상과 과거시제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8) 가. 방문을 닫았다.
나. 금방 방문을 닫았다.

(8)은 '방문을 닫-'라는 상황이 화자가 선택한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면이 보이는 예들이다. (8가)는 직관적으로 과거시제로 느껴진다. 한국어는 시제 우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과거시제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었-'의 기능 역시 기본적으로 과거를 지시한다. 그러나 (8나)처럼 부사어 '금방'을 사용하여 동작의 변화 양상을 강조해서 말하면 완결상으로 느껴진다. 이처럼 '시간적 위치'보다는 동작 전개의 '변화 양상' 자체에 초점을 두고 말하면 완결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8나)의 문장은 (8가)와 같이 과거인 점은 동일하지만 (8가)와 비교하였을 때 부각되는 면이 다르다. 따라서 이 문장은 과거시제에서 드러나는 완결상이다. 즉, (8가)는 '시제'적인 기능이 일차로 부각되는 경우이고, (8나)는 부사어 등의 도움으로 '완결상'이 부각되는 경우이다.

완결상과 비완결상은 화자가 '상황이 전개되는 측면을 어떤 각도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러한 '각도의 선택'은 전적으로 화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10] 아래 예문을 통해 완

10) [표 2] 'Perfective'와 'Imperfective' 용어의 다양성

		perfective	imperfective
한국어	이기동(1981)	완전상	미완전상
	김성화(2003)	완료상	불완료상
	김종도(1993)	완료상	비완결상
	한동완(1999가)	외망상	내망상
	박진호(2011) 김천학(2012)	완망상	비완망상
	박덕유(2007)	완료상	미완료상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학자마다 이들 용어를 조금씩 달리 해석하고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완료상과 미완료상, 완결상과 비완결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점차 완결상과 비완결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통일성을 위하여 perfective와 imperfective를 Comrie(1976)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며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용어로 사용한다.

결상과 비완결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자.

(9) 가. 방문이 닫혀 있다.
나. 방문을 닫고 있다.
다. 방문을 닫아 버리다.

(9가)에서 화자는 완성된 동작 전체를 하나의 완전체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이때 화자는 동작이 완성되고 그 결과가 남아있는 뒤의 일부분만을 들여다 본 것과 같다. 즉, '-어 있-'으로 인해 동작이 끝나고 그 결과가 남아있는 부분에 초점이 가해진 것이다. (9나) 역시 화자는 완성된 동작 '전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고 있-'에 의해 사태의 진전 단계 중 중간의 단계만 표현하는 것이다. (9다)는 완결상에 '-아 버리-'의 보조 동사에 의해 '명료화'나 '강조' 혹은 '양태'의 의미로 '아쉬운 감정'이나 '부담의 제거'가 부가되었다.[11]

따라서 화자가 (8가)는 과거, (8나)는 완결상, (9가)와 (9나)는 비완결상, (9다)는 양태가 첨가된 완결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상적 의미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8가)는 완결상이나 진행상과 같은 상적인 면이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단순히 과거인 것만을 알 수 있다. (8나)가 완결상이라는 것도 '금방'이라는 부사어가 완결상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부사어의 개입으로 완결상이 파악된다면 그 문장의 완결상

11) [비완성성] 동사에 결합되는 '-아 버리-'는 희미하게 인식되는 동작의 끝 단계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명료화'의 방법으로 완결상을 실현시키고, [완성성] 동사에 결합되는 '-아 버리-'는 뚜렷하게 인식되는 동작의 끝단계를 다시 드러내는 '강조'의 방법으로 완결상을 실현시킨다고 할 수 있다(이승희, 2016: 122)

가. 그는 그 냉면을 먹어 버린다.
나 그는 동생을 때려 버린다.

에 해당하는 요소는 '-었-'이 아니라 부사로 보아야 한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이미 완결되어 끝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 발생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완결상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개별 언어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특히 한국어에 있어 과거 시제 형태와 완결상의 형태로 동일하게 '-었-'이 쓰이는 것은 그 의미 기능에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지로서의 '-었-'이 과거 표지인가 완결상의 표지인가 아니면 혼합 표지인가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었-'이 드러내는 과거성 의미에는 완결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과거'의 기능이 부각되기도 하고 '완결상'적인 기능이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 비완결상은 보조용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선행동사와의 결합에서 선행동사가 본디 가지고 있는 어휘상의 자질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공기 양상도 다르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6. 어휘상과 보조동사 상 결합 양상

한국어의 상은 선행 주동사가 본디 지니고 있는 상적 자질과 보조용언이 지닌 상적 의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선택된 보조동사의 상적 의미는 화자의 선택에 의한 정보이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화자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았는가는 화자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즉, 동일한 상황에서 화자가 다른 측면의 각도에서 보았다면 다른 보조동사가 선택되었을 것이며 이때 전달하는 상의 정보 역시 다르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10) 가. 대한이가 수업시간에 자고 있다.
나. 대한이가 수업시간에 자 버려서 시험을 망쳤다.

다. 대한이가 수업 시간에 자 버렸다.

예문 (10)에서 동사 '자-'의 어휘상은 [동태성], [지속성], [[비완성성]의 '활동' 유형이다. (10나)와 (10다)에 쓰인 동사 '자-'는 동일한 어휘상에 속해 있지만 상적 의미는 각각 다르다. (10가)는 상황의 '진행'을, (10나)는 상황의 '종결'을 나타낸다. 동일한 동사가 다른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이유는 상적 보조동사의 상 기능이 주는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동사 '자-'가 지닌 끝점은 동사가 '본래 지니고 있는 끝점(FNat)'이 아니라 동작 자의 결정에 의한 '임의적(FArb)인 최종점'이다.

여기에 (10가)의 '-고 있-'이 부가되면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내부 단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진행'의 역할을 한다. (10나)의 '-어 버리-'가 부가 되면 상적으로 종결을 의미하여 선행동사 '자-'의 동작이 종결된 끝 부분이 강조되어 명시된다. (10다)의 '-었-'은 이 상황의 시작점, 내부단계, 끝점에 대한 정보를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완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어휘상이 주는 상적 정보, 보조동사가 주는 상적 정보, 완결상이 주는 상적 정보의 성격이 모두 다르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시간 부사어와 공기 관계도 다르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11) 가.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금방/ *곧} 자고 있다
나.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결국/ *마침내} 자고 있다
다.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종종/ 가끔} 자고 있다
라.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늘/ 항상} 자고 있다

(11)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은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내부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11가)는 '순간성' 부사인 '금방, 곧'과, (11나)의 '도달성' 부사인 '결국, 마침내'와 자연스럽게 공기하지 못한다. 내부 단계의 일부 지속 구간이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순간을 나타내거나 도달 의미의 부사와는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부 단계의 진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정 지속기간을 가져야 하거나 완결상 혹은 종결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문법적인 문장은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결국 자 버렸다' 혹은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결국 잤다'와 같이 표현해야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반면에 (11다)의 '간헐성' 부사인 '종종, 가끔'과 (11라)의 '상시성' 부사인 '늘, 항상' 등과는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12) 가.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금방/ 곧} 자 버려서 시험을 망쳤다.
나.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결국/ 마침내} 자 버려서 시험을 망쳤다.
다.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종종/ *가끔} 자 버려서 시험을 망쳤다.
라.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늘/ *항상} 자 버려서 시험을 망쳤다.

(12)는 종결을 나타내는 '-아/어 버리-'는 더 이상의 동작은 실행되지 않고 종결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12가)의 순간성 부사와 (12나)의 도달성 부사와는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종결된 순간'과 '종결의 도달'이 자연스럽게 호응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12다)의 '간헐성' 부사와 (12라)의 '상시성' 부사와는 자연스럽게 공기하지 못한다. 종결은 한 사건의 전개 과정에 한번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예문은 종결의 보조동사 '-아 버리-'를 삭제하고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늘/항상 자서 시험을 망쳤다'로 하던지, 보조동사 '-아 버리-'를 사용하려면 '대한이는 수업시간에 자 버려서 시험을 망쳤다'로 상시성 부사인 '늘/항상'을 제외해야 문법적이 된다.

이처럼 '어휘상'과 '보조동사 상'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상적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어휘상과 문법상'의 개념으로 이분

할 때 '문법상'은 보조용언 상 중 문법화의 정도가 높은 일부 보조동사 상('-고 있-'과 '-어 있-')을 의미한다. 문법화의 정도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보조동사 상 들이 '상'의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논하게 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문법상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일부 상 보조동사들이 어휘상과 문법상의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휘상은 동사가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적 자질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어휘상이 동사 층위가 아니고 동사구 층위에서 다른 문장성분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어휘적 성질을 부인할 수 없다. 문법상은 상황을 보는 관점으로 이들 상황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상황 내부를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느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조용언이 제공하는 상은 이들 둘과 좀 다르다. 형태적인 면은 어휘상과 비슷하지만 기능적인 면은 문법상과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고영근, 「국어 진행상 형태의 처소론적 해석」, 서울대 어학연구소,『어학연구』 16-1, 1980, pp. 151-170.

김기혁, 「국어 동사류의 의미구조」,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6-0, 1981, pp. 9-28.

김명희, 「국어 동사구 구성에 나타나는 의미 관계 연구: 보조용언에 의한 복합 구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제27집, 1988, pp. 1-18.

김종도, 「우리말의 상 연구」, 한글학회, 『한글』제219집, 1993, pp. 101-129.

김천학, 「동사와 상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한국어학회, 『한국어학』 제57집, 2012, pp. 179-206.

문숙영, 「상 범주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몇 문제」, 진단학회, 『진단학보』제120집, 2014, pp.129-157.
박진호, 「시제, 상, 양태」, 국어학회, 『국어학』 제60집, 2011, pp. 289-322.
이기동, 「A Tense-Aspect-Modality System in Korea」, 애산학회,『애산학보』제1집, 1981, pp. 71-118.
이남순, 「한국어의 상」, 홍익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동서문화연구』제2집, 1994, pp. 39-61.
이승희, 『한·중 동사분류와 결합제약 대조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이호승, 『현대국어의 상황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1997.
옥태권, 『국어 상조동사의 의미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88.
장석진, 「시상의 양상: '계속'·'완료'의 생성적 고찰」,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어학연구』9-2, 1973, pp. 58-72.
정희자, 「시제와 상의 화용상 선택조건」, 애산학회, 『애산학보』제15집, 1994, pp. 47-106.
한동완, 「국어의 시제 범주와 상 범주의 교차현상」, 서강대학교, 『서강인문논총』제10집, 1999가, pp.165-192.

2. 단행본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1.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2009.
구종남, 『보조용언의 의미와 문법』, 도서출판 경진, 2013.
김성화, 『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2003.
김차균, 『우리말의 시제 구조와 상 인식』, 태학사, 1999.
나진석, 『우리말의 때매김연구』, 과학사, 1971.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3.
박덕유, 『한국어의 상 이해』, 제이앤씨, 2007.
서정수, 『국어문법』, 뿌리깊은 나무, 2013.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국어학회, 1998.
우창현, 『상 해석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03.
오충연, 『상과 통사구조』, 태학사, 2006.
정렬모, 『신편고등국어문법』, 한글문화사, 1946.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1.

호광수,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 도서출판 역락, 2003.
Klein, H. G. Tempus, Aspekt Aktionsart, Tübingen, Niemeyer, 1994.
Smith C. S. *The Syntax and Interpretation of Temporal Expressions in English*. Linguistics and Philosophy 2, 1997.
Comrie, B.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투고일**: 2017. 10. 30 **심사완료일**: 2017. 12. 19 **게재확정일**: 2017. 12. 21)

이름: 이승희
소속: 한성대학교 교양국어 사고와 표현 외래강사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전화번호: 02)760-4250
전자우편:shclick@hansung.ac.kr

[Abstract]

A Study on Aspect as a Subcategory of Imperfective Aspect

- Focused on Auxiliary Verbs -

Lee, Seung-Hee

The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not in establishing the formation of auxiliary verb or reclassifying the category of perfective and imperf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stems from recognizing difficulties of understanding the whole with just a singular concept because the aspect as subcategory of perfective and imperfective are also closely related with lexical aspect.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make a consensus of necessity of binary classification between perfective and imperfective, a status and category of auxiliary verb aspects and lexical qualification of Korean. It is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but when the aspect of Korean is syntagmatically examined, it is able to find a consistent commonality regarding realization of Korea aspect. The paper i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Korean aspect is composed of the combination of information given by lexical aspect of preceding main verb and aspect meaning of auxiliary verb which takes a role as a functional morpheme following the main verb. Under this premise, the paper classifies the category containing imperfective aspect and discusses the category of corresponding auxiliary verbs.

Key words: Perfective, Imperfective, Lexical aspect, Grammatical aspect, Aspectual character, Progressive aspect, Continuative aspect, Auxiliary verb